

사회



사단장 현화

광주 남구청 광장에 마련된 故 서정우 하사와 故 문광욱 일병의 분향소에서 25일 육군 제31사단 모종화 사단장이 현화하고 있다.

/김진수 기자 jeans@kwangju.co.kr

합동분향소 줄 잇는 조문 행렬

시민·장병·경찰 등 추도 밤길 ... 27일 영결식

북한의 해안포 도발로 전사한 서정우(22) 하사와 문광욱(20) 일병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는 25일 각계각층의 조문행렬이 이어졌다.

합동분향소는 전날 밤 유족과 군당국의 장례절차 합의로 영결식이 열리는 27일 오전까지 운영되며, 분향소 주변에는 각계각층에서 보낸 조화 수십 개가 차리를 채워 고인의 고귀한 희생과 냄새를 기렸다.